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소설-식민지의 미친 과학자들2」(김주리, 2013.4 『한국현대문학연구』)

1. 이 글은 1910년대 『신문계』, 『청춘』, 『학지광』에 게재된 과학과 실험 담론을 대상으로 과학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를 해명하고 있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과학이론, 실험, 신기술을 다룬 과학 담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서술자의 시선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해석,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결과적으로 식민지 지식인의 시선에 나타난 균열을 해명하고 있는데 식민지 수도 경성의 실제 과학 현실과, 신문 지면을 통해 상상된(몽상된) 과학.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선의 간극을 분석한다. 1910년대 경성의 청년에게 과학은 실체가 아닌, 환상과 몽상으로 신비화되며 그것이 식민지 청년의 개인적 성취 욕망과 연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식민지 현실을 응낙한 제국주의 담론에 포섭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과 해석은 ‘식민지’라는 정치성을 전제로 문화 담론의 관점에서 과학담론을 재해석한 것으로 결국 과학담론-계몽담론-제국주의 담론이라는 탈식민주의 분석 틀과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2. 과학과 신비, 기술과 요술

- (속물적 교양과 엽기적 취미 수준의 과학 기술 담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과학 이론이나 실험, 신기술을 다룬 과학 담론은 교양으로 암기하는 지식이거나 엽기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읽을거리로 존재한다. 『신문계』는 고도의 혁신적인 과학 기술습득에 대한 장려보다는 보통 지식 습득 장려를 목적으로 여러 과학 기술 담론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민지 과학 기술은 상식 수준이나 하급 기술관료의 이해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 (과학 지식의 통속화) ‘동물기담’ - 지구상의 언젠가, 어디에선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동물의 기이한 모양, 특성 등을 소개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각종 통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실용적 지식이 아닌 엽기적 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 1910년대 잡지에서 과학과 기술 담론은 비행기와 잠수함 같은 ‘신기한 발명품’과 상상력을 극대화한 폭탄 같은 ‘가공할 신기술’, ‘화학자 실험실의 기괴함’ 등에 대한 소개에 집중된다.

3. 1910년대 경성의 환상과 기술 발명가의 몽상

- (낙관적, 계몽적 전망) 1910년대 소설에서 과학 기술은 계몽적이며 낙관적인 전망 가운데 형상화된다. 특히 1915년 물산공진회 이후 경성을 배경으로 한 서사에서 신지식층 청년 주인공은 과학 기술 습득과 발명 및 공업진흥에의 요구를 통해 낙관적 미래를 열어 보인다.

- 벽종거사의 「경성유람기」: 식민지 근대 자본주의 도시 경성을 유람하는 노인 이승지와 청년 김종성, 소년 어성룡의 시선과 목소리는 진보와 근대화, 서구화, 도시화, 식민화한 각종 현상 앞에서 이질적인 방향을 나타낸다

*노인에게 경성과 과학기술은 음탕하고 사악한 요술과 같은 것.

*청년과 소년에게 기차란 술법의 세계가 아닌, 발명의 산물로서 기술적 숭고를 동반하는 대상. 인류에 거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훌륭한 기계를 발명해낸 존재로 과학자를 극찬.

과학 기술자와 발명가는 비정치성을 띤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하며 소년, 학생의 야심찬

미래를 기획. 식민지 근대 상황에서 영웅이나 위인은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과학의 천재, 발명의 천재로 간주된다. 과학은 세계를 바라보고 창조하는 원동력이자 신인류의 기본 자질로서, 청년의 각성과 결합한다. 엑스광선 같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관찰력과 명민한 판단력, 손의 힘과 슬기를 통해 새로운 진리를 깨는 존재(56)

- 작가는 식민지 조선의 급선무가 정치적 독립이나 해방이 아니라 공업의 발달, 산업 사회로의 변신에 있다고 이야기함 -> 정치적 무의식 가운데 식민지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
- 그것은 곧 제국의 기술자 혹은 교육 받은 하급 관료로 변신하는 것임-> 일신의 영달에 머무를 가능성을 낳고 결국 제국의 청년으로 포섭되는 한계를 보여준다.
- 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전근대도시 한양에서 식민지 근대도시 경성으로 급격하게 변모한 1910년대 도시 공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 과학 기술을 숭고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피식민의 정치적 문제를 문명 발전의 교육적 문제로 바꾸어놓은 신지식층 청년의 이해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1910년대 지식층의 욕망이란 끝없이 '경성은 아직 멀었고나'하는 탄식만을 낳을 뿐이다.

4. 1910년대 실험실의 과학과 광기

- 1910년대 지식 청년층에게 근대 과학의 신기술은 1900년대 계몽지식인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종소리'나 '기적소리'가 아니라 '폭약의 소리'로 다가왔다. 종성이나 기적성이 아니라 포성을 통해 동시대 과학 문명을 감각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러한 신문물의 이기가 실물이 아니라 지면을 통해 상상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 신문지면의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 신기술에 대한 피식민 지식층의 지식과 감성은 몽상적인 형태를 띤다. 엽기적인 활극의 형태로 몽상된다. 각국의 최신 무기 과학기술을 나열하는데 거포, 잠항정, 비행기, 무선전신, 장갑자동차, 전쟁 의학 기술(혈액 배양술, 뼈 접합술, 뼈 생장 억제 등) 화학물, 화약원료발명, 나이프라이터, 도난경보기, 전기자동차, 등 경이로운 감탄의 대상, 탄식의 대상일 뿐이다.
- 미래의 생활 방식도 현재와 달라져, 모든 것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후 먹을 것까지 전기화될 것으로 예상('자네 시장한듯하니 電氣를 좀 먹게') 곧 과학적 대상을 신비화함
- 서구의 것을 재문맥화하며 지식의 욕망만을 진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시도는 피식민 조선의 실제와 무관하게 서구 문명에 대한 과잉 혹은 왜곡된 모방 욕망을 보여준다.
- 이광수 『개척자』 : 최신 과학 기술에 대한 발명 욕망이 피식민 지식 청년을 어떻게 죽음과 광기로 몰아가는지 보여준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새로운 물질(화합물)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공장을 세워 실험을 성공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몽상은 현실에서 일탈된 광기로 나아가고 실패와 파산을 반복하며 죽음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야심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그의 실험실은 죽음과 광기, 실패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된다. '과도한 시대착오'가 모두를 광기로 몰아넣은 것. 피식민인의 재산 정도나 지적 한계, 기술적 한계를 돌아보지 않고 인류애에 기반한 발명을 꿈꾸게 만든 근대 과학의 기술적 숭고함이야말로 광기와 죽음의 근거

5. 최신 과학 기술과 문명은 현실적인 것이라기보다 허구적인 몽상과 신비한 미혹의 세계로 나타나며, 동시대 과학 문명 제국의 시선을 전유한 피식민 지식인들은 그에 대한 모방 욕망과 피식민의 소외된 현실 사이에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